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ubo.or.kr>



추님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 \_ 대구 바오로딸서원 큐유 장식

## † 오늘의 전례

“우리는 동방에서 임금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 2,1-12 참조)

공현이라는 말은 하느님께서 공공연하게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박사들이 천신만고로 마다하지 않고 멀리서 찾아온 것은,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빛이 이제 이방인인 그들에게도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구세주의 빛이 달갑지 않고 오히려 성가신 것입니다.

**제1독서** 이사 60,1-6      **제2독서** 에페 3,2,3ㄴ,5-6      **복음** 마태 2,1-12

**입당송** 보라, 만군의 주님이 오신다. 그분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가 있다.

**화답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영성체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주님을 알리는 별이 되자

김원조 라우렌시오 신부 | 대곡본당 주임

오늘은 주님의 공현 대축일입니다. 이날은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함으로써 주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 날입니다. 이러한 공현대축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려주는 하나의 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복음서는 세 명의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왔고, 무엇을 드렸는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마태오 복음 2장에 보면 하늘에 별이 나타나고, 그 별의 인도에 따라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달려와서 유다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 경배를 드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후, 꿈에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도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는 별-길잡이가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가는 하늘의 별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 별을 쫓아가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때로는 별을 잃고 헤매기도 하고, 어두운 밤길을 홀로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생각되는 그때, 그 곳에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릴 수도 있고, 헤로테와 같은 무서운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고자하는 노력은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 별은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걷어낼 때 더욱 빛나고 나를 환히 비추어줄 것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진리를 목말라하며 구원의 진리를 찾아 나선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주님께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은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과 봉사와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예물을 가지고 구원자이신 주님을 찾아 나설 때, 하느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빛을 주실 것이고, 온갖 어려움과 장애물을 이겨내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앞길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를 비추지만, 그 빛을 맞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 구원을 얻느냐, 죽음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본 별은 어떤 별입니까?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별을 쫓아 수만리를 달려왔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늘의 신비로운 가르침을 좇는 용기와 결단을 통하여, 결국 구세주를 만나 뵈옵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별빛을 보고서도 그들의 삶에 안주를 하였더라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구원을 보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열린 마음은 하늘에 비추이는 별빛을 보고 구원의 빛으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빛을 알아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별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말하고 있는지 깨달은 신앙인입니다. 주님 오심을 알리는 별을 알아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알려주는 별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희망하고 있는지, 또 주님께 어떠한 예물을 드리려고 노력하는지 돌아보며, 우리 자신들도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이 되어 이웃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별이 되었으면 합니다.

## 제47차 세계 평화의 날 교황성하 담화문(요약)

## 형제애, 평화의 바탕이며 평화로 가는 길

세계 평화의 날에 제가 처음으로 보내는 이 담화에서, 저는 모든 사람이, 모든 개인과 민족들이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형제애는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형제애가 없으면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도 없고, 확고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이룩할 수도 없습니다. 형제애의 기초는 하느님의 부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막연하고 역사적으로 비현실적인 유전학적 부성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느님의 특별하고 매우 구체적인 인격적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마태 6,25-30 참조). 그리스도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알아 뵈고 하느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여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하느님의 가정에서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결합시키기 때문에, 곧 성자 안에서 자녀가 되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생명’은 결코 없습니다.

수많은 사회에서, 우리는 가정과 공동체의 관계가 견고하지 못하여 관계의 심각한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곤은,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형제적 관계를 재발견하고 중시할 때에만 비로소 극복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절대 빈곤이 줄어들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적 빈곤이 심각할 정도로 증대되고 있음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제애의 원칙을 증진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의 지나친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무력을 통하여 폭력과 죽음을 확산시키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히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찔러야 할 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임을 깨달으십시오. 무력의 길을 포기하고 대화와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만나러 가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주위에 정의와 신뢰와 희망을 다시 세우십시오!

형제애는 발견하고 사랑하고 경험하고 선포하고 증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랑만이 우리가 형제애를 받아들이고 온전히 체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치와 경제에 필요한 현실주의는, 이상도 없고 인간의 초월적 차원도 간과하는 단순한 기술적 요령으로 전락될 수 없습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자신을 열어 얻게 되는 그 폭넓은 차원으로 나아가 갈 때에야 비로소, 정치와 경제는 형제적 사랑의 진정한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질서를 이루고 온전한 인간 발전과 평화의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한 몸의 지체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끌어안으시고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에 있다”(루카 22,26-27). 그러므로 모든 활동은 사람들, 특히 가장 멀리 있고 잘 모르는 이들을 위한 봉사의 자세를 특징으로 하여야 합니다. 봉사는 평화를 이룩하는 형제애의 혼입니다.

바티칸에서, 2013년 12월 8일  
교황 프란치스코

## 짧지만 중요한 삼위일체 신앙고백 \_ 성호경

문화홍보실

많은 사람들은 천주교 신자를 알아보는 가장 큰 표식으로 성호경과 묵주를 말합니다. 심지어 방송을 통해서도 출연자들이 성호를 긋는 모습이나 손가락에 묵주반지를 끼고 있는 모습을 통해 천주교 신자인지를 알아보곤 합니다.

‘성호’는 ‘십자성호’(十字聖號)의 줄임말이며 성호경은 이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하는 가장 짧으면서도 중요한 삼위일체 신앙고백기도입니다. 성호경은 전례와 기도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회의 박해시대 때에는 ‘성호’가 교우들이 신자임을 드러내는 표지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십자성호를 긋고 당당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순교의 칼을 받았고, 박해로 쫓겨다니던 교우들이 ‘성호’를 긋는 것으로 서로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성호는 가톨릭뿐만이 아니라 동방정교회나 일부 그 밖의 그리스도교 종파에서 조금 다른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교우들은 생활 속에서 십자성호를 긋는 습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어디에서든 이마에 십자성호를 그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습관이 4세기경에는 전례로 들어와서 사제가 사람이나 사물에 십자를 그어 축복하는 관습으

로 발전했는데, 이때부터 이마뿐 아니라 가슴에도 작은 십자 표시를 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이마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두 어깨를 연결해 크게 십자가를 긋는 것은 5세기경부터 실천되었으며 12세기경부터는 오늘날 복음 전에 하는 것처럼 이마와 입술과 가슴에 작은 십자가를 그리는 형식이 전례에 도입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십자성호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십자성호로써 주님의 몸이 거룩해지고, 세례수가 축성되며 사제들과 다른 직무자들이 서품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행하는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은 거룩하게 됩니다.”

성호경을 바치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 때의 기억을 되새깁니다. 또한 우리의 몸에 십자가의 표시를 함으로써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임을 나타내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뜻을 지닌 성호경을 무의식적으로나 성의 없이 행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무성의하게 대하는 것이 됩니다. 천천히, 크게, 이마에서 가슴으로,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십자 성호를 긋다보면 온몸이 십자가의 표시와 하나가 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필문**



# 아름다운 손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에게는 나이 어린 동생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소녀는 어린동생들을 굶주리게 하지 않으려고 어린 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된 생활을 해 왔습니다. 잘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과로가 겹쳐 소녀는 결국 병으로 쓰러지게 되었고 몸이 워낙 쇠약해진 상태에서 걸린 병이라 소생하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지자 마지막으로 성사를 집전하시기 위해 신부님께서 가 소녀의 병상을 찾아왔습니다.

“신부님! 저는 성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동생들을 돌본다는 핑계로 그 동안 주일을 지키지 않았으며 기도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느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측은한 마음으로 그녀를 지켜보던 신부님의

눈길이 문득 그녀의 손에 멈추었습니다. 그 손은 도저히 어린 소녀의 손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과도한 일로 인해 손마디는 울퉁불퉁 불거져 있었고 손 여기저기에 찢긴 상처들이 나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소녀의 두 손을 감싸 쥐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얘야 하느님께서 너에게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으시거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이 두 손을 하느님 앞에 내어보이거라. 이 아름다운 손만을...”

소녀는 예수님께 자신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 자신의 삶의 무게와 고통, 희생의 모습이 고스란히 간직된 손을 바쳤습니다. 그 손이 그 소녀에게 있어서 황금이요, 유향이며, 몰약일 것입니다. **골로 3:23**

## 금주의 성인

1월 5일	성녀 신클레티카 (동정녀 400년경)	성녀 에밀리아나 (동정녀 6세기)	성 텔레스포로 (교황, 순교자 136년)	성녀 탈리다 (수녀원장 4세기)	
1월 6일	성 가스파르 (동방박사 1세기)	성 맬키오르 (동방박사 1세기)	성 발타사르 (동방박사 1세기)	성녀 마크라(287년) (동정 순교자)	
1월 7일	성 라이문도 (총장, 신부 1175~1275년경)	성 루치아노 (신부, 순교자 312년)	성녀 쾨티게르나 (과부, 은수자 733/734년경)	성 킬로 (은수자 702년경)	
1월 8일	성녀 구둘라 (동정녀 712년)	성 막시모 (주교 511년)	성 세베리노(482년) (선교사, 수도원장)	성 아보(주교) 성 아폴리나리스 (주교 호교론자 179년경)	성녀 페가(719년) (동정, 은수자)
1월 9일	성 바닝고 (수사 683년)	성 하드리아노 (수도원장 710년)	성녀 바실리사(304년) (동정 순교자)	성 필란 (수도원장 8세기경)	
1월 10일	성 니카노르 (부제, 순교자 1세기경)	성 마르치아노 (신부 480년)	성 아가토 (교황 681년)		
1월 11일	성 살비오 (주교, 순교자 625년)	성 테오도시오 (수도원장 423~529년)	성녀 호노라타 (동정녀 500년)	성 히지노 (교황 142년)	



### ■ 성탄 대축일 미사 봉헌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12월 24일(화) 오후 8시 기계성당에서 성탄 전야 미사를 봉헌하시고, 12월 25일(수)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에서 성탄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셨다.

### ■ 2013년 사제·부제 서품식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12월 27일(금) 오전 10시 남산동 성김대건기념관에서 12명의 부제를 사제로 서품하셨다. 그 전날인 12월 26일(목)에는 16명의 새 부제가 탄생하였다. 대신 학원 과정이 7년제로 변경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12월에 서품식이 거행된다.

### ■ 교구장 동정

꾸르실료 신년교례회 미사\_ 일시: 1. 6.(월) 19:30, 장소: 꾸르실료 교육관 대성당

올해도 힘차게!!

박성규 엘리지오



# 미사안내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월 6일(월) 11:00 성동성당	1월 후원자 가정을 위한 월례미사	1월 6일(월) 11:30 한국SOS어린이마마을 성당
말말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1월 6일(월) 11:00 계산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월 6일(월) 11:00 죽도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1월 6일(월) 19:30 꾸르실로 교육관 대성당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1월 11일(토) 11:00 성모당		

## 성소 | 피정

**말씀의 성모영보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1.12(일) 14:00, 과천 본원  
 성소상담: (010)5449-3166

**마음을 더 가볍게 하는 피정**  
 기간: 2.14(금)~16(일) / 3.14(금)~16(일)  
 장소: 성 베네딕토 왜관 피정의 집  
 대상: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지도: 최봉도 신부  
 문의: (054)971-0722  
<http://innerheal.kr>

**제주 자연 피정**  
 기간: 2.18(화)~21(금) / 2.23(일)~26(수)  
 2.28(금)~3.2(일) / 3.9(일)~12(수)  
 3.18(화)~21(금) / 3.26(수)~29(토)  
 문의: 성이시돌피정센터, (02)773-1455

## 교육 | 모집

**쉬운방법으로 읽는 거룩한독서 성경 모임**  
 접수기간: 1.6(월)~2.27(목), 선착순  
 낮반: 월~목, 저녁반: 월~화

장소: 어버이성경학교, 대상: 전신자  
 내용: 요한복음  
 문의: 툇정포교베네딕토수녀회, 815-1114

**새빛학교 한글·국어반 신입생 모집**  
 접수: 1.6(월)부터  
 대상: 한글에 자신 없는 성인남녀  
 문의: 476-3100

**가톨릭교리신학원(통신)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1.11(월)~14.2.7(금)  
 과목: 신·구약, 신학일반(전례학 등)  
 대상: 평신도, 수도자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2014 맨발 가르멜 재속회 회원 모집**  
 첫째주 일요일 (011)530-7763  
 첫째주 월요일 (011)9321-3497  
 넷째주 일요일 (010)6263-0947  
 넷째주 월요일 (010)4733-1715

**대가대 모래놀이치료실 개설**  
 대상: 만5세~성인(심리상담이 필요한)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 윤일관내

상담사: 김용희 모니까(모래놀이상담사급)  
 문의: (010)4096-2296

**프란치스카눔 교육생 모집**  
 가곡교실: 화 14:30, 수 19:30  
 지도교수: 김남수 · 이선경  
 개인집단 상담(학습 및 진로, 가족, 부부)  
 내용: 상담 / 심리치료 / 부모교육  
 강사: 최옥희(석사)  
 문의: (070)4266-0047

**2014 전가2차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일반 및 특수대학원(창조융합, 디자인, 신학, 사회복지, 음악, 국제다문화, 보건, 의료)  
 접수기간: 1.2(목)~10(금)  
 문의: 850-3637(일반) / 660-5512(특수)  
<http://www.cu.ac.kr>

**14학년도 전기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계절제) 신입생 모집**  
 접수기간: 1.2(목)~15(수)  
 분야: 21개 전공, 교원자격증 발급  
<http://edu.cu.ac.kr> 모집요강 참조  
 문의: 850-3505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배입표(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지역사회 최초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무료검진  
**위·대장내시경·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고혈압 소화기·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국가자격 장례 지도사**  
 국비지원계좌제 및 일반반 모집  
 ▶ 취업준비생 ▶ 퇴직준비하시는 분  
 ▶ 창업하실분 ▶ 남녀,나이,학력 제한없음  
 ※ **무시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대경장례지도사교육원**  
 (경상북도 지원 제4호)  
 ☎ **053)813-7006**

**성모님 발원지를 따라서...**  
 루르드, 파티마, 스페인(바르셀로나)-12일  
**출발일: 2014년 3월 24일**  
 순례경비 3,990,000원  
**T. 053)253-3399**  
[www.sungjitour.com](http://www.sungjitour.com)  
 (주)성기여행 코렐레(유스타노)

**JINSUNG Architects & Interior**  
**진 성 건축**  
**건축사·인테리어 사무소**  
 건축설계/인테리어/전원주택  
 대표/건축사 **성 호 근(다니엘)**  
 이 중 배(안드레아)  
 효목동 효동초등학교 입구  
**T.017-242-7927, 053-952-7927**

**목조전원주택 전문시공**  
**21C HOUSING**  
 21C주택산업  
 이정수 마리아  
 경산조폐공사정문 앞  
**(053)817-0322 | 010-2624-0322**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최추와 어깨·무릎을**  
 치료하는 **14명**의 의료진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흠(요한)  
**T. 630-8000** 지하철 1호선 송현역 2번 출구

## 행사 | 모임

### 23회 성 이윤일 요한제

9일 기도미사: 1.12(일)~20(월)

매일 15:00 (단, 토 17:00)

순교기념미사: 1.21(화) 17:00

주제: 선교의 꿈

문의: 관덕정순교기념관, 254-0151

## 교육 | 모집

### 2014 학생 후보 기자단 모집

입단시험: 1.12(일) 11:00

장소: 교구청 별관 4회합실

대상: 무지개 초4~6학년 진급생  
새하늘 새땅 중1~고2학년 진급생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6

### 청소년 동아리 회원 모집

마감: 1.14(화) 17:00

대상: 중 1학년~고 2학년

분야: 문학 동인회, 사진·영상 동아리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4~6

<http://www.jesusclub.or.kr>

### 성요셉요양병원

#### (구,논공가톨릭병원) 환우 돌봄

노인성질환(치매·중풍 등), 말기암

환우 영성치유 돌봄

장효원(요셉) 신부님 매일미사 봉헌

입원상담: 615-4871

### 교구 음악원 시편성가, 발성법 연수

일시: 1.5(일) 15:00

강사: 김정선 수녀, 박재연

회비: 1만 원 / 문의: 255-4847

### 613차 성령 세미나

2박 3일(일반): 1.10(금)~12(일)

문의: 대구성령봉사회, (054)954-0951

###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주말

317차: 1.17(금)~19(일)

318차: 2.21(금)~23(일)

장소: 한티피정의 집

문의: 대구ME, 983-0521

###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플룻, 바이올린, 오카리나, 통기타,  
우쿨렐레, POP, 초코아트, 톨페인팅,  
백세건강강좌(무료)

문의: 476-6211

### 2014 재속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

일시: 1.18(토) 14:00

장소: 월배성당뒤 프란치스코눔

준비물: 지원서 지참요망

문의: (010)3440-0304

### 바로로말 영화치료 행복한 영화 읽기

4기: 1.22부터 (매주 수) 13:30

5기: 1.24부터 (매주 금) 18:30

장소: 공평동 시내 바로로말 서원

내용: 힐링무비·토크, 소통과 공감

문의: 김 에반젤리나 수녀,

(010)2658-5185

### 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이용

내용: 가정폭력, 부부갈등, 가족문제 등

이용방법: 전화, 내방, 사이버상담

상담: 253-1405~6

[http:// www.with1401.or.kr](http://www.with1401.or.kr)

### 대구대교구 빛 떼제기도

일시: 2014년 매월 둘째 토 18:00

내용: 식사, 떼제, 친교

대상: 남녀 청년, 가족 누구나

문의: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010)9056-9005

### 15회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어학연수

2차: 2.27(목) 8, 12주

3차: 3.29(토) 8, 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해외봉사 인증서(학점인증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 채용 | 안내

### 2014년 교구 신앙 다이어리 판매

판매처: 계산서원, 바로로말서원,

삼덕성당 임마콜라파성물방,

성바로서원, 바티카노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6~9

사랑하는 자녀에게 밝은 세상을  
**아이 라식**은  
사랑입니다.

의학박사  
현, 연세대의료교수 원장 **박중원** (소시모)  
**대구연세안과**  
☎ 053.626-8881-5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100년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가대 르네상스 시대' 를  
열어갑니다

2014. 5. 15  
개교100주년  
기념식

대구가톨릭대학교  
100

**안마의자 렌탈, 특가판매**  
안마의자, 승마운동기  
DdM 로하스테크안마의자대구점

오 해 수 (미카엘)  
010-8956-9351 / 354-9020  
대구 동구 봉무동 이시아가구백화점 1층  
(무료체험실운영)

**요양보호사 국비 지원**

신차 교육생 신차 취업률  
신차 연속합격률

▶요양원 · 방문요양 부설운영  
**사랑요양보호사교육원**  
대구 053)791-7677  
경산 053)813-7343

**비염·축농증**  
코 질환 집중 치료  
대구수성점 **코비한의원**

대표원장 이 판 제(주까)  
☎ 053-753-9795 수성구청 4번 출구 앞

**All That Music**  
(올댓뮤직앙상블)  
웨딩연주 및 행사연주 기획연주전문  
(관악, 현악, 중주, 오케스트라  
구성 자체 편곡 연주)

대표 이상 준(사무엘)  
010-2778-7004

국내 최초 '아픈증세 상담하고  
좋은의사 소개하는'  
**LDK의원**

원장, 병리전문 의  
이동구 (마티아)  
천 대구의료원 원장

범어네거리 4번 출구  
Tel, 053)755-7775  
[www.ldkclinic.com](http://www.ldkclinic.com)

**애플비뇨기과**  
www.appleuro.com

비뇨기과 원장 강 일(베드로)  
전문의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 암검진)  
요로결석클리닉(24시간 채석)  
범어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